나주시, 2027년 햇빛소득마을 공모 대비 현장 컨설팅 본격화

주민 주도형 사업 준비 지원 강화



나주시 다시면 동촌마을 주민들이 햇빛소득마을 사업 설명을 듣고 있다. /나주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2027년 햇빛소득마을을 정부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찾아가는 사전컨설팅을 실시하고 마을별 사업 추진 기반 마련에 나섰다.

19일 나주시(시장 윤병태)에 따르면 오는 27일까지 한국에너지공단과 합동으로 '2027년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 공모사업'에 대비한 찾아가는 마을별 사전컨설팅을 추진한다.

이번 컨설팅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7개 면 12개 마을을 방문해 주민들에게 사업 내용과 추진 절차를 안내하고 충분한 정보 공유와 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 주도의 사업 참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들이 협동조합 등을 통해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발전 수익을 공동체와 공유하는 사업으로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재생에너지 확산을 함께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앞서 나주시는 2027년 정부 공모사업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을별 참여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각 면을 순회하며 이장 등 마을 대표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후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마을을 대상으로 사전컨설팅 대상 12개 마을을 확정하고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맞춤형 지원에 나섰다. 시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 마을별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고 공모사업 선정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성택 기자

담양군, 내년 예산 5,902억 원 편성…9.2% 증가

담양군(군수 박종원)은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5,902억 원 규모의 2027년 본예산안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 5,796억 원, 특별회계 106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9.1%, 13.5% 증가했으며, 사회복지·농업·환경 분야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배분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미식관광 대표메뉴 개발, 산림작물 보급, 스마트 재난구호 시스템 구축 등을 반영하고, 체육공원과 생활용수 개발 등 주요 사업에도 재원을 집중했다.

한편, 이번 본예산안은 담양군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8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강종연 기자

화순군, '추억의 능주' 관광자원화사업 준공

화순군(군수 임지락)은 능주면의 영벽정, 지석천, 연주산 일원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자원을 연계한 '추억의 능주 관광자원화사업'을 4년간의 공사 끝에 지난 10월 준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능주면의 수려한 수변 경관과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해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체류형 관광객을 유입하고, 지역 주민의 여가 휴식 공간을 넓히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사업비 87억 원을 투입해 지석천을 가로지르는 길이 120m의 출렁다리를 비롯해 숲속 쉼터와 전망대, 숲속 산책로 등 다양한 관광·휴식 시설을 조성했다. /남호경 기자

영광군, 공장 · 창고 화재안전 민관합동 실태조사

11월부터 2027년도 말까지 위험도별 단계적 점검 실시



영광군청 전경 사진 /영광군청 제공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공장 · 창고시설의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1월부터 관내 500㎡이상 공장 · 창고 315개 동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실태조사를 민관합동으로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최근 대규모 공장과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이어진 데 따른 정부 종합대책의 하나다, 현장별 안전정보를 확보하고, 건축 · 소방 분야의 위험요소를 함께 살펴 시설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군은 전체 조사 대상 가운데 위험물을 보유한 초고위험 사업장 13개 동을 올해 말까지 우선 점검하고, 나머지 시설은 2027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합동점검반은 영광군과 관할 소방서 공무원, 건축사, 소방 관련 기술자 등으로 구성하고, 관계법령 준수여부와 민간 전문가의 기술적 진단을 병행해 조사의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내화구조와 방화구획, 마감재료 적정성, 소방설비 및 피난시설 관리 상태, 불법 증축·용도변경 여부 등이다.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조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영광군 건축허가과 관계자는 "공장·창고 화재는 대규모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과 철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가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 기자

장성군, 농촌 인력 부족 문제 '근본'부터 해결한다

김한종 군수 "농업인, 근로자 모두 만족하는 고용 환경 조성 노력"



정배광 장성군 건설농정국장, 아누손 캄싱사밧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고용국장 사진 /장성군 제공

장성군이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업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중장기적인 인력 수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환경 개선이다. 군은 지난 3일 '장성군 농업 근로자 기숙사'를 준공했다. 동화면 남평리 일원에 바닥면적 1152㎡,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된 기숙사는 최대 40명이 생활할 수 있다.

장성군의 민선8기 공약사업인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은 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선정 이후 부지 매입,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거쳐 이번에 준공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농가의 숙소 확보 부담도 줄일 수 있어 긍정적이다. 숙소는 내년도 공공형 계절노동사업과 연계해 공공형 계절노동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농촌에 필요한 인력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지원 체계 마련에도 힘쓴다. 장성군은 지난달 21일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보고회'를 갖고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김한종 장성군수와 군의원, 농협 관계자, 농업인, 관련 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해 농업 인력 수급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지역 농업 여건에 맞는 인력 확보 및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장성군은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수급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군은 주거 지원과 인력 수급 대책으로 농촌 인력난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김재섭 기자

